

# 정선군, 버스 완전 공영제 6월부터 시행 10명 중 4명 무료이용



정선군 공영버스

최승준 군수

강원 정선군이 올해 6월 시내(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다.

정선군은 지난 3월 31일 영암고속, 화성고속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유·무형 자산 양·수도 계약을 했다. 계약금액은 총 13억6천여만원이다.

이에 따라 정선지역 농어촌버스 운영체제는 40여년 만에 민영에서 정선군 직영으로 전환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선군은 강원여객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유·무형 자산 양·수도 계약을 하고 버스 공영제 시행에 합의했다.

정선군은 이들 운수업체의 자산 인수를 5월 중 마무리하고, 6월 중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번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는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1천원 단일요금제다. 특히 65세 이상, 초·중·고교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수급권자 등 교통약자는 무료이용한다.

정선군은 지난해 말 공영버스 사업 운영조례를 제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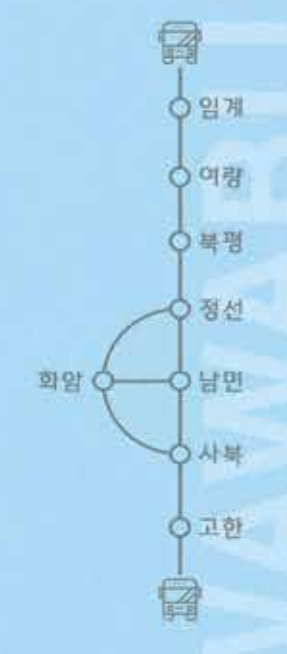
이들 교통약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공영버스 무료이용 교통카드 신청을 받는 중이다.

공영버스 무료이용 카드 발급 대상은 1만6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버스 완전 공영제가 시행되면 정선 주민(2019년 말 기준 인구수 3만7천여명) 10명 중 4명이 무료이용 혜택을 받게 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앞으로 효율적인 노선 개편으로 군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이동권 보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며 “신속한 자산 인수, 운영시스템 구축 등 이른 시일 내 버스 공영제 시행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⑦



국가재난 상황인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정선군 버스완전공영제  
2020년 6월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와와버스란?

정선군의 여행캐릭터인 와와군을 적용하여 모든 사람이 정선으로 오라는 뜻의 “와와버스”

